

블랑팡, 오션 포토그래피 어워드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오션 커미트먼트를 강화하다

선구적인 하이엔드 워치메이커 블랑팡이 오션 포토그래피 어워드(Ocean Photography Awards)와 파트너십을 맺으며 2021 년 어워드의 메인 파트너가 되었다.

이 파트너십은 좀 더 건강한 바다를 추구하는 스위스 브랜드 블랑팡의 끊임없는 헌신을 대변한다. 또한 블랑팡이 바다와 맺고 있는 중요한 역사적 연결고리에 경의를 표한다. 바로 300 여 년에 달하는 역사 속 중요한 이정표인 1953 년 세계 최초의 모던 다이빙 워치 피프티 패덤즈의 론칭이다. 블랑팡은 해양 탐험가, 해양 과학자, 한계에 도전하는 심해 사진작가들과의 협업을 70여 년간 이어왔고, 해양 보존 프로젝트에 대한 블랑팡의 후원 덕분에 4백만 km² 이상에 달하는 바다를 보호할 수 있었다. 블랑팡이 바다와 함께 들려주는 이 풍성한 이야기에 오션 포토그래피 어워드가 추가되었다.

오션 포토그래피 어워드의 미션은 단순하다. 바다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바다가 직면한 많은 위기들에 대해 알리는 것이다. 어워드는 모든 포토그래퍼(아마추어, 프로, 잠수부, 서퍼, 나이 무관)에게 열려 있으며, 전 세계 오션 포토그래피 커뮤니티에 존재하는 인재들과 그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어워드는 함께 즐기고 논의하는 예술, 바다를 사람들의 심장과 마음 중심에 놓는 예술 등 바다가 지닌 예술성을 수백만 명과 함께 공유하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오션 포토그래피 어워드의 창립자 윌 해리슨은 말한다. “블랑팡을 2021 년 파트너로 맞이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바다 탐험과 보존에 대한 블랑팡의 헌신 덕분에 오랫동안 중요한 바다 탐험을 성취하고 최초의 탐험 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열정적인 메종의 정체성 일부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바다에 대한 진실성이야말로 OPA2021 에 걸맞은 요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블랑팡의 대표이자 CEO인 마크 A. 하이예크는 말한다. “블랑팡 오션 커미트먼트는 사람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심해 세계를 열어 준 피프티 패덤즈의 역할을 계승하며 블랑팡은 바다 관련 이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사람들, 특히 온전한 바다의 아름다움을 지키자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을 후원해왔습니다. 바닷속에 숨겨진 놀라움과 지구 위 생명체에게 지니는 바다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오션 포토그래피 어워드의 메인 파트너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션 포토그래피 어워드 2021 은 2021 년 6 월 1 일 공식적으로 시작되며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2021 년 올해의 오션 포토그래퍼 상(Ocean Photographer of the Year™ 2021)을 비롯해 전반적인 수상자는 2021 년 9 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같은 달 런던에서 관련 전시회가 이어진다.

씨레거시 콜렉티브(SeaLegacy Collective) 일원으로 구성된 심사 위원으로는 폴 니클렌(Paul Nicklen), 크리스티나 미테마이어(Cristina Mittermeier), 숀 하인리히(Shawn Heinrichs), 앤디 만(Andy Mann), 존 웰러(John Weller), 아미 비탈(Ami Vitale), 안드레 머스그로브(Andre Musgrove) 등이 있다. 각 심사위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오션 포토그래피 어워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션 포토그래피 어워드는 해양 보존 자선 단체인 씨레거시의 후원으로 오셔노그래픽 매거진(Oceanographic Magazine)에 의해 진행된다.

관련 이미지:

- 2020 년 어워드 수상자 관련 이미지는 블랑팡 프레스 라운지(Blancpain Press Loung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미지는 오션 포토그래피 어워드 관련 기사에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 포토그래퍼에 대한 크레딧을 명시해야 합니다.

링크 및 정보:

- www.oceanographicmagazine.com/opa
- www.blancpain-ocean-commitment.com
- www.blancpain.com